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55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8年 3月 30日(月) 11時05分 開式

第55回平昌郡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全完鐸)

(11時05分 開式)

○ 議事係長 全完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議長 李相薰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54회 임시회를 가진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불충분한 자치여건 속에서도 자치역량 제고와 의정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항상 의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부도사태를 맞은지 1년째 접어들면서 최근 하루에 1백개의 기

업이 부도나고,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본격적인 어려움은 이제부터라는 불길한 전망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위기 탈출과 관련해 1년전과 지금 사이에 그다지 바뀐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금융사회와 한국경제가 약속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씬씬이 줄이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기탈출을 위하여 고통분담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무엇하나 딱부러지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위기의 근원 치유보다는 어찌하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변을 다시 살펴 보

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의 위기가 계속되어가고 있는 중에, 본격적인 어려움은 이제부터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랫동안 몸에 배어온 생활습성의 위기의 불감증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은 피하지 말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으로 군민의 여망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이번 현지확인에 임 하심에 있어 성실한 안내 및 사업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회기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全完鐸 : 이상으로 제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3分 閉式)